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24년 1월 14일 (둘째 주일)

성경본문 : 마태복음 1장 18-25절

설교제목 :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우리는 마태복음 1장을 크리스터 스텐달이란 학자가 주장한 바대로, 예수가 누구이신가?의 관점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서는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의 패턴에서 가장 큰 이탈이 16절이었습니다. 대개 족보의 보편적인 패턴은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인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러한 패턴이 이탈되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3-6절에서, ‘아버지가 어머니에게서 아들을 낳고’라는 패턴으로의 이탈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도, 아버지가 낳고의 주체가 됩니다. 그런데 16절은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고 함으로 완전한 이탈을 보여줍니다. 왜 이런 이탈이 생겼습니까? 그 답이 오늘 18-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잉태되심은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되어졌다고 합니다.(18절) 개역 개정에는 약혼으로 번역했지만, 정혼이 더 적절한 표현입니다. 유대인에게 정혼은 결혼하기 위해서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약혼보다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정혼하면 남자와 여자는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단지 함께 살지 않으면서, 육체적 관계만 하지 않을 뿐입니다. 정혼을 하고 결혼을 하기 까지 대략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정혼의 기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선, 여자에게는 성적으로 정결한지를 평가하는 시간입니다. 더불어, 정혼기간 중에 남자는 여자를 맞이할 집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정혼 중에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의롭다’는 ‘디카이오스’는 율법을 잘 지키는 자, 율법에 바로 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율법을 따라 이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9절 하반 절에서 **‘드러내지 않고자 하여 가만히 끌고자 했다’**는 것은 요셉이 마리아와 이혼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혼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이득이 됩니까? 요셉에게 이득이 됩니다. 이혼하는 것이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임신한 마리아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재판장에서 조용히 이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리아에게 유리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요셉을 의로운 자라고 표현한 이유는 그가 율법을 지키는 자였지만, 마리아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파혼을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의로운’이란 표현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킨다는 의미와 자신의 유익보다 타인의 유익을 고려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의 잉태고지를 알립니다.(20절) 사실, 요셉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었겠습니까? 요셉이 다 이해하고, 마리아를 데려 온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데려온 것입니까? 22-23절이 답입니다. **22-23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23절에 본문은 이사야7:14을 인용한 것입니다. 사7:14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1:23의 ‘처녀’로 번역된 헬라어는 ‘파르데노스’입니다. 한글 번역처럼 처녀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7:14의 처녀는 히브리어로 ‘알마’입니다. ‘알마’는 젊은 여인입니다. 히브리어로 처녀는 ‘베틀라’입니다. 그런데 ‘알마’란 단어를 썼습니다. 처녀와 젊은 여인은 다릅니다. 젊은 여인은 아이를 낳을 수 있지만, 처녀는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에는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것을 처녀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마태가 신학적 의도가 담긴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을 신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의 몸을 빌어 완전한 하나님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이땅에 오셔야 했습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21절) 구원을 위해 반드시 죄의 문제가 처리되어야 합니다. 죄의 값은 반드시 생명으로만 그 값을 치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값을 감당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죄가 없어야 합니다. 둘째, 완전한 인간이어야 합니다. 인간의 죄값은 오직 인간의 생명으로 대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서 탄생하셨기에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행4:12) 따라서, 마태는 이사야의 ‘젊은 여인’인 ‘알마’를 ‘파르데노스’, ‘처녀’로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요셉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이해해서 마리아를 데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요셉은 말씀을 따라 삶을 결정하는 자였습니다. 요셉은 주의 말씀이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습니다.(24절) 그런데 요셉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리아를 데려온다는 것은 당시 체면과 명예를 중시하는 사회에서 수치와 배척과 거부를 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요셉이 쌓아왔던 모든 평판과 의로움이 비웃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불이익보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예수 믿고 이후에 고난이 없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십자가를 안지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말씀의 순종의 통해 오는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이자, 말씀의 십자가를 지려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올 한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그 말씀이 주는 어떤 결과도 기꺼이 감내하기로 결단함으로, 우리의 삶에 예수가 오셔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해 보기

- 1)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 2) 마태가 이사야 7:14의 처녀(알마, 젊은 여자)를 자신의 복음서인 마태복음 1:23에서 처녀(파르데노스, 동정녀 혹은 처녀)로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 3) 예수님은 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인간의 몸으로 이땅에 오셔야 했는지 그 신학적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말씀 나누고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불편함이 무엇인지 구역원들과 함께 구체적으로 나누어 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